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신석기시대의 질그릇가마터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삼석구역 호남리로 향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표대 유적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의 질그릇가마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질그릇조각들과 석기들이 나왔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신석기시대 질그릇의 특징은 거의 모든 질그릇들이 갈색이며 그 형태와 장식부늬가 매우 다양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고 림금석실장은 말하였다.

장숙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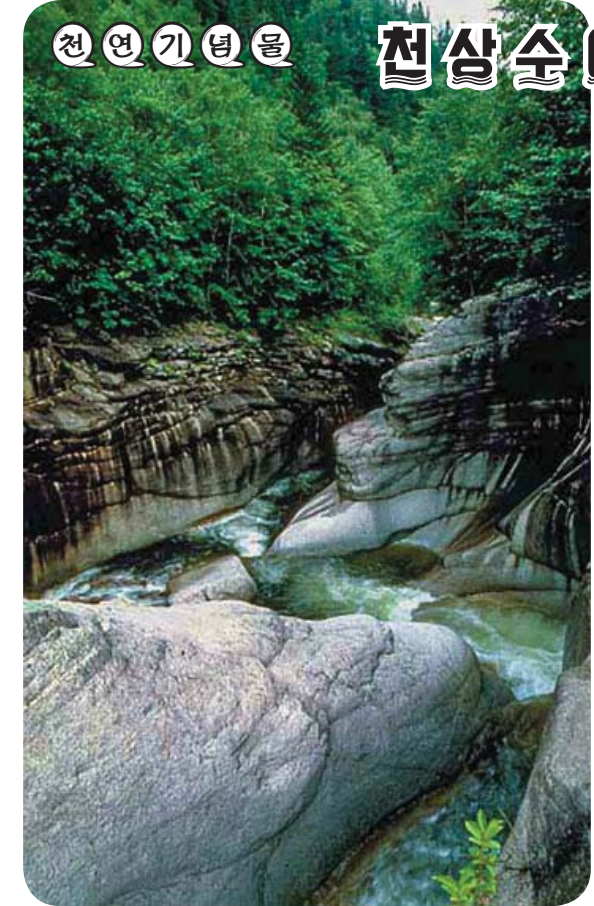
광범히 리용되는 스마트카드조작체계

《울림》 4.0

최근 공화국의 평양정보기술국 카드연구소에서 개발한 스마트카드조작체계 《울림》 4.0이 사람들속에서 광범히 리용되고있다.

응용프로그램관리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을 실현한 것이다. 즉 비법적인 카드와 응용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과 응용프로그램을 비법적으로 갱신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막기 위한 방법을 설계하고 실현하였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천상수아흔아홉굴이

천상수아흔아홉굴이는 함경북도 연사군 삼포리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관모봉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연면수의 지류인 천상수가 흐르는 골짜기에 있다.

본사기자

사화

마지막 발명품 (4)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그제야 영실은 잠을 자지 못하여 빨갛게 피말이 선 눈을 크게 뜨며 천천히 허리를 꼰다. 《상감께서 친림하셨네.》 《상감께서?》

세종은 빙그레 웃었다. 《어찌 이리도 무추한 곳으로 친림하시오이까. 실로 황감하오이다.》 《허허... 별말을 다 하는구나. 영실이 일하는 곳인데 어찌 무추하고 말고 할게 있느냐?》

세종은 궁담밀 양지쪽에서 한창 피어 향기를 풍기는 복숭아꽃을 바라보며 발자국을 메었다. 영실은 꽃이 핀것을 오늘 처음 보았다. 그렇지만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도 벌써 시절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조급한 마음만 앞섰다.

그의 얼굴에서 점차로 피기가 가시치고있었다. 《어서 말씀드리게.》 옆에서 듣고있던 리천이 일깨워주어야 영실은 나직한 소리로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소인에게 락이 있다면 오직 한가지 기술을 바쳐 새로운 문물을 이루어놓는것뿐입니다. 그밖에는 한생 다른 락은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해 말씀이 없다면 소인은 천한 몸이라...》



영실이 5푼량관벼슬에 해당하는 상의원 별차라고는 하지만 언저 그런 벼슬다운 대우를 해준적이 있으며 또 어느 누가 그를 5푼량으로 여긴적이 있었는가. 영실이 자신도 자신을 벼슬아치로 생각해보진 않았으며 그 대우를 받던적도 없었다. 그 벼슬은 임금이 믿음줄을 주어 몸가까이 두고 쓰러 한다는 의미밖에는 아무런 내용도 가지지 못하는 빈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제발 나에게 많은 돈이 있었으면, 그렇게만 되면 일생을 편안하게 살게 아닌가.》 어느날 그가 친구를 불렀고 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석공이 그들의 걸을 지나치다가 그의 말을 듣게 되었다. 석공이 물었다. 《자네 뭐가 부족해서 항상 불평을 부리는가? 내보기엔 자네 이미 부자나 같네.》 《뭐라고요? 내가 부자라고요?》 《자네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반문하였다. 《그러면 나의 재부는 어디 있소?》 《하하하, 내가 알려주지.》 석공이 껄껄 웃으면서 말하였다. 《먼저 자네의 눈부터 말하자구. 자네 한쪽 눈을 둔이나 물건과 바꿀수 있나?》

《천만에.》 짧은이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하였다. 《무슨 당치 않은 소리를 하는거요? 난 내 눈을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소.》 《그렇다면...》 석공이 말을 이었다. 《내가 자네에게 많은 돈을 주겠으니 자네의 손을 도끼로 잘라도 되겠나?》 《후.》 짧은이가 어찌구무가 없다는듯 말하였다. 《손이 없으면 다음에야 돈이 무슨 필요가 있소?》 그러자 석공이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으며 말하였다. 《옮겨서, 그러니 보라구. 자네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말해보. 현대 왜 자기가 가난하고 불행하다고만 불평을 하나?》 내 말을 명심하게. 사람에게서 허파 건강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일세. 돈으로도 이것들은 살수가 없어.》 말을 마친 석공은 활개를 치며 자리를 떠났다.

2021년 10대 최우수교원 남포사범대학 환경과학부 생물화학강좌 강좌장 장경일

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다. 2021년 10대 최우수교원으로 선정된 그는 오늘도 후대들을 유능한 창조형 인재로 더 잘 키우기 위해 교수사업에 혼신을 다 바쳐가고 있다.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길쌈

랭동기보관을 고려해야 할 과일과 남새

속담과 뜻

가장 귀중한 재부